

가정용 전기기기의 소유 및 사용 실태

A survey on the conditions of holding and using
the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김현진*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육조교
안옥희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현지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I. 서론

근래에는 여성들의 의식수준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생활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주부들의 가사활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의 확대로 직장을 가지는 주부가 늘어나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 시간 및 노력을 극소화시킬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활동과 가사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주부들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가전기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동성(mobility)이 높은 현대의 가정은 몇 회의 이사를 거쳐야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가전기기는 생활 기기 중 전기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기 구입 시에는 예상되는 내구년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당장의 요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년 후의 필요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전기기 구입시 온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택 내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들의 색상·디자인·크기(용량)·기능 등은 가족 전체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전기기 선택시 가장 마지막 결정권은 주부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가정마다 life style이나 life cycle, 요구수준 등이 다르므로 필요한 기기를 명확히 열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정 내의 가전기기의 소유 및 사용 실태와 그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가전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여 가사노동 시간 및 노력을 극소화시켜 절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30~50대의 주부 300명을 선정하였으며, 20대와 60대 이후는 제외시켰다. 그 이유로는 신혼기와 노년기의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운 life cycle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가정용 전기기기의 소유 및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가소유자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일정기간 뒤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27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242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가전기기 구입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절전에 관한 사항, 가전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기의 분류는 식생활 관련, 주생활 관련, 의

생활 관련, 여가생활 관련, 위생생활 관련의 다섯 분야로 나누었다.

Ⅲ.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4세이며, 평균 가족 수는 4.4명이며 결혼년수는 평균 19.7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주거관련 일반사항에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48.3%)과 아파트(51.7%)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평균 거주년수는 약 7년 3개월, 이사횟수는 약 4.3회로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 나라 국민이 평균 3.6회 이사한다(최외선 외, 1998)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은 조사대상지역이 도시로서 이동성이 다소 높은데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대상의 주택규모는 평균 36.6평이며, 방의 수는 약 3.3개였다. 1990년 가구당 방의 수는 도시의 경우 2.5개, 평균 주택규모는 20~30평이 31.5%이므로(최외선 외, 1998), 본 조사대상자의 주택은 규모면에서 평균 이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거실과 주방의 분리여부에서는 분리인 경우가 73.9%로 주택규모가 30평 이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의 전기관련 일반사항에서 전기용량의 형태는 89.1%가 220V이었으며, 변압기 사용 기기의 유무에서는 '있다'(50.7%)가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거주년수가 거의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였으므로 220V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월 지출되는 전기요금의 평균은 약 3만 3천원이며, 가계지출에서 전기요금은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2. 가전기기 구입에 관한 사항

가전기기 구입시 사전계획 유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구입 전에 계획을 한다'는 답변이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장소로는 전자제품대리점(67.8%)이 가장 많았다. 가전기기를 구입시 그 가전기기에 대한 기대 만족도는 94.2%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을 기대하였고, 사용후에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가전기기의 품질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전기기를 '충동구매로 산 적이 있다'라는 사람이 20.7%이고, 이 중 65.5%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전기기의 내구년한을 약 10년으로 볼 때 충동구매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전기기를 구입 후 후회 경험 유무에 대한 대답은 42.2%가 후회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후회 기기의 종류를 보면 냉장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오디오, TV, 비디오, 세탁기 등의 순이었다.

3.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가전기기 구입 후 설명서는 주로 기기의 사용방법만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기기의 교환시기는 대부분 고장이 났을 때(92.7%)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 정보수집은 팜플렛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내 전시된 것이 30.0%, TV광고가 2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전기기 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기기를 구입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전기기 회사의 폭넓은 정보와 정확하고 쉬운 선전 팜플렛이나 광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소유 기기의 가장 불만사항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4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크기의 불만(27.8%)이었으며, 디자인(16.1%), 사용방법의 어려움(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기기 관리는 60.3%가 고장시에만 관리하였으며, 가전기기 고장시는 84.6%가 A/S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평소에는 가전기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이다.

한 개의 콘센트에 꽂는 기기 수는 2개(74.5%)가 가장 많았으며, 가전기기 사용시 코드는 '계속 꽂아진 상태에서 사용한다'가 50.4%이며, '사용할 때마다 꽂아서 사용한다'가 44.7%로 나타났다. 또한 절전을 위한 노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는다'(48.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용횟수를 줄이는 것'(40.0%)으로 절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전형 기기의 사용(11.5%)도 나타났는데 절전형 전기기기의 사용개수는 1~2개가 62.7%로 나타났다.

가전기기의 안전사고 경험 유무에서는 '있다'가 24.3%, '없다'가 75.7%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합선 44.3%, 감전 25.7%, 사고 부주의가 22.9%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후 해결방법은 A/S가 55.4%로 가장 많았고, 교체하는 경우도 20%로 나타났다.

4. 공간별 소유 및 사용 실태

(1) 식생활 관련

가정에서 다루는 식생활 관련의 전기기기로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전기믹서기, 토스트기, 컷트기, 녹즙기, 전기포트, 약탕기, 커피메이커의 15종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소유유무에 있어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믹서기는 많은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냉장고는 99.6%의 높은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식기세척기는 14.5%, 전기오븐은 29.2%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년수는 5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6~10년도 20~30% 정도 나타났다. 이는 가전기기의 내구년한이 10년 정도이고 보통 가정에서 기기 교환시기는 7년 정도이므로 6년 이상이 되면 점차 고장도 나고 새로운 기기들의 출현으로 싫증이 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가전기기 대부분 소유개수는 한 개이며, 냉장고는 23.8%, 전기프라이팬 16%, 컷트기 10%가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었다.

플러그의 사용상태는 전반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플러그를 계속 꽂아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매일 사용하는데도 반 정도는 사용할 때마다 꽂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플러그의 사용상태는 사용횟수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식생활 관련 기기의 대부분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주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만족정도에서는 소유년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유년수가 5년 이내의 기기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조사대상 주부들은 대부분 소유한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생활 관련

주생활 관련 기기로는 환기팬, 환기후드, 에어컨, 선풍기, 스토브, 가습기, 청소기, 전기담요, 공기정화

기, 스탠드의 10종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소유유무에서는 선풍기(93.3%), 청소기(86.6%), 스탠드(73.0%), 에어컨(60.4%) 등의 순으로 높은 소유도를 나타내었으며, 공기정화기와 스토브, 환기팬 등은 낮은 소유도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관련 기기의 소유년수와 비교하여 주생활 관련 기기의 대부분이 비교적 짧은 소유년수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주생활 관련 기기에 많은 변화가 왔으며, 특히 유행이나 디자인에 민감한 스탠드나 청소기 및 에어컨, 공기정화기는 거의 75%가 5년 이내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기기의 크기와 사용횟수에 따라 선풍기, 전기담요, 스탠드 등은 2개 이상 소유하는 가정이 많았으며, 비교적 이동이 편리한 소형 기기들은 1개에서 최고 7개까지 그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개 이상 소유하는 기기는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플러그의 사용상태에서는 환기팬, 환기후드, 스탠드는 플러그를 계속 꽂아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에어컨, 선풍기, 공기정화기, 스토브, 가습기, 청소기, 전기담요는 사용시에만 플러그를 꽂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 관련 기기의 만족도에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며, 가전기기 구입이나 교환의사는 청소기 8.4%, 선풍기 6.7%, 에어컨 5.6% 등으로 나타나 거의 90% 이상이 구입이나 교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생활·여가생활 관련

의생활에 관련된 전기기기로는 세탁기, 다리미, 전기재봉틀의 3종을 선택하였으며, 여가생활과 관련된 기기로는 TV, 비디오, 오디오, 전화기, 컴퓨터, 게임기, 라디오, 케이블TV의 8종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의생활 관련 기기에서 세탁기와 다리미는 90%를 넘게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전기재봉틀은 30%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가생활 관련 기기에서는 TV(96.9%)와 비디오(93.4%)는 비슷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오디오는 81.1%, 라디오 81.0%, 전화기는 96.5%, 컴퓨터는 72.4%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게임기는 20.5%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의생활 관련 기기에서는 세탁기 57.7%, 다리미 60.2%, 전기재봉틀 54.7%가 소유년수 5년 이내로 나타났다. 6~10년 정도의 소유년수도 대략 30% 정

도였다.

그리고 여가생활 관련 기기에서 TV는 5년 이내가 58.6%, 6~10년 이내가 33.9%이었다. 또한 TV, 비디오, 오디오의 소유년수에서 5년 이내와 6~10년 이내의 가전기기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컴퓨터나 게임기, 전화기 등은 유행이나 빠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70~80% 정도가 5년 이내의 소유년수로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58.4%)나 전화기(67.2%)는 2개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생생활 관련

위생생활 관련 기기로는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진동칫솔, 칫솔살균기, 정수기, 비데의 6종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위생생활 관련 기기 중 헤어드라이기와 전기면도기의 소유는 91.1%와 65.5%로 비교적 가정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진동칫솔, 칫솔살균기, 정수기, 비데 등은 아직 10% 미만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생활 관련 기기의 소유년수는 5년 이내의 것이 80~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의식의 개혁으로 과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위생생활 관련 기기들이 최근에는 관심이 점점 높아져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위생생활 관련 기기는 점차 많은 사용이 나타날 전망이다.

거의 대부분이 1개 정도 소유하였지만 헤어드라이기(26.9%)와 전기면도기(16.0%)의 경우는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횟수에서는 위생생활 관련 기기인 만큼 칫솔살균기는 '매일 사용'이 100%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진동칫솔 91.7%, 비데 85.7%, 정수기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플러그의 사용상태에서는 플러그를 계속 꽂아두고 사용하는 기기는 비데, 정수기, 칫솔살균기 순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진동칫솔,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는 사용할 때에만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칫솔, 칫솔살균기, 비데 등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가 90% 이상이었지만 구입희망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위생생활 관련 기기에 대한 인

식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30~50대 자가소유의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전기기기의 소유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구매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소비행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활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생활 관련 기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소유년수가 비교적 긴 편이었다. 이는 오늘날 주부들의 식생활 문화에 가정용 전기기기가 편리성과 다양성을 가증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생활 관련 기기는 비교적 짧은 소유년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의생활 관련 기기에서 세탁기와 다리미는 90%가 넘는 소유를 나타내는 반면 전기재봉틀은 30%의 소유를 나타내고 있어 가정 내에서 의복 제작 및 수선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가생활 관련 기기에서는 TV와 전화기는 2개 이상 소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와 게임기 등은 소유년수가 짧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 관련 가전기기의 소유와 사용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생생활 관련 기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소유도가 낮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가정 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양해졌고, 그 용량 또한 대형으로 점점 변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절전형 기기의 사용률은 매우 낮으므로 절전형 기기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이정우, 가정생활기기관, 수협사, 1998.
2. 신경주, 생활기기, 수협사, 1996.
3. 최외선 외, 생활과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8.
4. 조선일보 1998년 2월 21일 기사, 절약시대의 환경운동.